

‘백결선생’ 과 ‘떡’

Sir Baek Gyol and Rice Cake



송호섭 | Song, Ho-seob, KIRA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인 S&K

약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 건축사지편찬T/F 위원회 위원
- MBC 중장기건설기획단 자문위원 역임

요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은 안부전화 하지 않는 게 서로 도와주는 거란다.

“무소식이 희소식 때문이라기보다는, 길치레 인사로 안부 주고받기가 몹시 낯설기 때문이라네”

지나가듯 던지는 한마디에 그동안 애써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 은연중에 드러나 보이는 게 싫기 때문이다. 무척이나 자존심 강한 우리 건축사님들….

물건을 살 때 대부분은 정가가 매겨져 있어,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부담 없이 정상 거래할 수 있다.

설계를 할 때, 현장 답사도 하고 법적 검토도 해보고 개략적인 사업성검토도 하면서 화기에에 진행되다가도 계약 얘기만 나오면, “아는 건축사사무소 많은데… 가까운 친척이 건축사사무소를 하는데…” 하면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 찾아와 준 것만도 어딘데 아예 용역비 많이 받을 생각 말라는 암시를 준다. 그럴 때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정가처럼 시스템에 기대어 통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실질적인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고, 일거리 많은 것도, 돈 많이 받는 것도 오로지 개개인의 비즈니스 능력으로만 치부되는 사이, 비록 몇몇 예외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서로가 ‘기준’이 되어 버린 비극을 낳고 말았다. 서로서로 비교되면서 자꾸만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치킨-게임 처럼.

일전에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던 어떤 건축주가 이곳저곳 사무소를 돌면서 계획안을 받아 본 것만 40여개가 넘는다는 얘길 듣고, 일거리에 목말라하는 건축사들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소망이 너무나도 혈값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행여 설계 수주로 이어질 수도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 든 독배라 하기엔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아무리 자유경쟁하의 서비스업이라지만 최소한의 회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보호 장치만은 반드시 마련 되어야겠다.

국내 어느 변호사사무소에서 상담과 일련의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해 주는가? 또 어떤 병, 의원에서 종합건강진단, 진료와 처방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몇십 군대를 돌면서….

지금쯤은 크면 크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고들 한다. 민간 소규모 사업도 활성화 되지 않고 관에 의한 입찰, 현상공모 등에 의존하기엔 제약이 있고 변수가 많기에 여의치 않다. 점증하는 내외적 비용 상승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열악한 계약조건으로 일하다 보니 소싯적 푸른 꿈은 어느새 빛이 바래어,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몰라도 생계형 건축사란 너울을 쓰고, 말 그대로 제 생계 꾸리기에도 급급하며 일상이 짓눌려 있다. 얼마나 더 큰 인내와 희생이 따라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들 온전히 버틸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로또식의 일회성 일감 확보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제도개선과 업무영역 확대에 의한 안정적인고도 지속적인 일감 확보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동서고금의 철학, 음악, 미술, 문학, 심리학, 사회학… 최신 전문 엔지니어링 지식에다 디자인센스, 수주를 위한 비즈니스, 관련법규의 섭렵 등등 가히 팔방미인의 경지를 넘나들며 건축 이론을 논하고, 심지어 디자인의 근본을 추구한다며 생명의 신비와 무한의 우주생성 원리까지도 감히 논하면서,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걸다가 그만 발밑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는 건축사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오늘 따라 문득 옛 신라시대 누더기 옷을 걸친 거문고의 명인 백결선생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

설날을 맞아 마을 이곳저곳 떡방아 소리가 들려오는데, 부인이 “우리는 무엇으로 과세합니까?”라고 근심하자, 백결선생은 거문고로 망앗공이 소리를 대신 내어 위로 하였단다.

정말 우리 살 길 좀 제대로 찾아봅시다.

이젠 진짜 떡방아 소리를 듣고, 진짜 떡을 먹고 싶다. 시루떡이건 인절미건…